

Healing V. 결국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2:11]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 잔치 - 잔치를 찾는 사람들

혼인잔치의 문제는 포도주의 고갈에 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다. 진짜 기쁨이 없다. 인간의 기쁨은 고갈된다. 그 이유는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측된 기쁨. 익숙한 기쁨은 영원하지 않는 찰나적 기쁨이기 때문이다.

2. 예수님의 첫 기적이 왜 가나의 혼인잔치였는지를 주목해야 한다.

(1)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는 잔치의 상황

불안하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는 끝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전긍긍 불안해하는 것이다. 인간의 잔치의 재료가 되는 포도주는 진정한 안정감과 기쁨을 주지 못한다.

(2) 인간의 행복은 행복안에서도 불안함이 있다.

안정적이지 않다. 행복에 대한 '확신' 이 없다. 내 행복과 기쁨의 요소가 되는 일에 대한 진정한 '확신'이 있는가? 결국 확신에 대한 문제이다. 내가 붙잡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사람은 결국 확신을 갖고 싶어한다. 그 이유는 '확신' 이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다.

(3) 세상은 불확실성의 시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이다.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영성은 무엇인가?

(4) 확신은 안정감을 만들어준다.

확신이 중요한 이유는 안정감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 안정감이 우리의 삶에 행복과 기쁨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인간이 만든 포도주, 잔치의 중심이 되는 인간의 포도주는 어떤 안정감도 잔치에 주지 못한다.

(5) 인생에 흐르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불안함과 두려움의 강이 우리를 지치게 한다.

인간은 안다. 내가 만든 포도주에 안정감이 없다는 것을 안다.

3. 물 떠온 하인의 믿음, 그리고 기쁨

장면이 변한다. 예수님이 등장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한 하인들이 있다. 예수님의 명령이 하인들에게 떨어진다. 물을 채우라는 것이다. 돌항아리 여섯을 채우기 시작한다.

[요한복음 2: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1) 물 떠온 하인의 마음과 상황

하인들이 처한 상황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 있었다. 불안한 상황이다. 걱정이 있는 상황이다. 이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포도주를 사와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가?

그런데, 하인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불안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걱정, 근심의 강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다.

(2) 불확실한 상황속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

가다보면 점점 확신이 생겨난다. 알 수 없지만 평강이 있다. 따뜻함이 있다. 생명은 갈수록 힘이 생겨난다. 에스겔 47장을 보라. 주의 강이 닿는 곳마다 치료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 크레센도 되며 상응된다. 그러나, 세상의 강은 갈수록 불안하다. 지친다. 힘이든다. 가장 큰 문제는 아무리 부어도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다.

(3) 순종은 타이밍이다.

내 시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시간에 반응하다 보면, 갈수록 생명으로부터 능력이 부여진다. 그 능력이 확신이 되며, 믿음이 된다.

4. 첫 표적, 물이 포도주가 되다.

예수님의 첫 표적이 중요한 이유는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2:11]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기적은 포도주를 증가시킨 것이 아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성분 자체를 바꾸신 것이다. 본질과 성분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영역이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다. 구원은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5. 물 떠온 하인의 기쁨 - 하늘의 신비를 알아버린 하인들

[요한복음 2:9]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하인들은 알더라’ 는 무슨 말인가?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의 증인들이다. 이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시, 공간을 초월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다. 이 땅에서 극상품의 포도주로 잔치안에 일어나는 기쁨을 다시 보았다. 이 말이 ‘하인들은 알더라’ 는 뜻이다.

불확실한 상황속에서 빛을 따라가라. 생명의 길을 따라가라. 가다보면 기적이 일어난다. 순종함으로 향아리에 물을 채우다 보면, 이해가 되지않아도 순종함으로 물을 채우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제 첫 기적의 장소로 나아가라. 내가 처한 모든 곳이 기적의 장소가 되게하라. 불확실하지만, 믿음으로 향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라.

여섯 향아리는 매일의 일상과 같다. 날마다 채우라.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라. 순종으로 반응하여 채우라. 그러면 이제 기적을 볼 것이다. 차원이 다른 기쁨을 맛볼 것이다. 예수님의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는 길은 불확실한 상황속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임을 명심하여, 기쁨의 확신을 마음에 새기자.

‘순종을 통해 파쇄되는 내 뜻과 의지와 생각’

순종을 통해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살게하라. 계속 순종하는 것이다. 불순종을 파쇄하라.